

콤플렉스(Complex)를 통해서 본 고려의 사회와 인간*

- 文·武의 차별을 중심으로 -

朴 晉 勳**

머리말

I. 문벌사회의 확립과 무인의 콤플렉스

II. 콤플렉스의 지속과 변화

맺음말

요약

본 연구는 고려시대 사람들이 지녔던 열등콤플렉스를 文人과 武人의 차별을 중심으로 살펴본 글이다. 성종 이후 유교적 정치이념에 근거하여 지배체제 정비가 시도되어, 文治主義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문인들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가운데 이들에 의해 門閥이 성립되었다. 문벌들은 다른 지배집단과는 구별되는 차별의식을 형성하고 이를 인간관계, 사회관계에서 표현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오만과 교만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차별대상의 직접적 피해자는 주로 무인들이었다. 무인들은 문인들의 이러한 행동에서 상처받고 피해의식 즉 열등콤플렉스를 가지게 되었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32-A00011).

** 명지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조교수

투고일: 2011년 5월 15일

심사일: 2011년 5월 18일

심사완료일: 2011년 6월 3일

학문 능력을 가지지 못한 무인들은 문벌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배제되었다. 문인과 무인은 사회적으로 유리되었고, 심리적 장벽이 두텁게 쳐졌다. 더군다나 문인과 무인의 차별적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게 되자 무인들의 열등콤플렉스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종대에 들어와 문인들의 무인들에 대한 차별적 행동이 직접적으로 표출되자, 무인들의 좌절감과 분노, 열등콤플렉스는 견잡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결국 무신정변이 발생했을 때 이는 문인들에 대한 극단적이고 잔혹한 가해로 표출되었다.

무신정변 이후 무인들이 문인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다. 하지만 武보다 文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풍토는 변하지 않았다. 학문을 하는 문인들은 학문을 통해 올바른 도리를 알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인 반면 그렇지 못한 무인들은 올바름을 알지 못하며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무인들이 문인들에 대해 가지는 열등콤플렉스는 극복되지 못했다.

하지만 한편에서 문인들의 자기반성이 이루어지면서 무인에 대한 문인들의 비하의식이 완화되었고, 무신정권을 거치면서 무인들의 힘과 존재를 인정하고 긍정하게 되었다. 또한 儒學의 발전과 성리학의 도입으로 새로운 도덕규범들과 선비상이 제시되었다. 학문을 하여 올바름을 알고, 忠과 孝를 실천하는 사람을 선비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무인이라고 하더라도 학문을 하고 忠·孝를 실천한다면 선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노력에 따라 선비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무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완화시키고 무인들의 열등콤플렉스를 극복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주제어 : 열등콤플렉스, 문인과 무인의 차별, 선비상, 학문능력, 심리적 장벽

머리말

역사학 연구는 국가, 정치, 제도, 사건 등 큰 주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한국사 연구, 고려시대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다. 따라서 역사 연구의 대상은 제도적인 것, 큰 주제만이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모든 것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서구 역사학에서는 이미 20세기 후반에 思想·心性 등 추상적인 영역으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였다.¹⁾ 理性 또는 인간 이성의 합법칙적 발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제도나 체제, 思想에 비해, 인간의 심성은 개개인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며, 개인의 심성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가변적이다. 여기에서 일정한 법칙성이나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군다나 개인의 심성은 아주 지엽적인 것이어서, 역사의 큰 흐름에서 보면 미미한 것으로 보이기 쉽다. 따라서 인간의 심성 또는 심리와 관련된 역사 연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는 고려시대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2007년 고려시대 사람들의 집단심성에 관한 공동연구가 있었고 그 결과물이 제출되었을 뿐이다.²⁾ 이는 고려시대의 역사와 인간에 대해 한층 폭넓고 다른 시각에서 이해를 하게 해주는 기초를 닦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고려시대 문인과 무인의 차별과 그로 인한 무인의 열등복합플렉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시대에는 우리 역사에서 특이하게 문인과 무인의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시기이고, 그 결과 무신정권이 성립

1) 하일식 편, 2007, 『고려시대 사람들의 삶과 생각』, 해안, 15쪽.

2) 하일식 편, 2007, 위의 책.

한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무신정변과 무신정권에 관심을 가졌고, 무신정변의 발생원인³⁾과 무신정권에 대한 정치사적, 제도사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⁴⁾ 하지만 이를 심성사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아직 없다.⁵⁾

고려왕조 성립 이후 정치와 제도의 기본이념으로 儒學이 자리 잡은 이후, 지배계층은 문인과 무인으로 대별되었다. 하지만 문인과 무인의 관계는 동등하지는 않았고, 줄곧 문인 우위의 사회가 형성되었다. 당연히 문인과 무인의 갈등은 사회적, 정치적으로만 표출되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특히 같은 지배계층의 일원이면서 차별 대우를 받는 무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내면의 심적 갈등⁶⁾과 열등의식⁷⁾이 있었을 것이다. 본고에

-
- 3) 발생 원인으로 문·무반의 차별과 이로 인한 무신들의 불만(尹瑑均, 1930, 「高麗毅宗朝に於ける鄭仲夫亂の素因とその影響」, 『靑丘學叢』 2), 武인들의 지위 향상과 귀족정권의 抑武政策의 충돌(邊太燮, 1965, 「高麗武班研究」, 『亞細亞研究』 9-1; 1971,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재수록), 毅宗의 失政(李丙燾, 1948, 『高麗時代の研究』, 乙酉文化社; 邊太燮, 1981, 「高麗貴族社會의 諸矛盾」, 『韓國史』 7), 일반 군인들의 불만(李基白, 1968, 「高麗軍役考」,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의종대 왕권 및 정치세력들간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河炫綱, 1981, 「高麗 毅宗代의 性格」, 『東方學志』 26; 채웅석, 1993, 「의종대 정국의 추이와 정치운영」, 『역사와 현실』 9) 등이 지적되고 있다.
 - 4) 金塘澤, 1987, 『高麗武人政權研究』, 새문社; 閔丙河, 1990, 『高麗武臣政權 研究』,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洪承基編, 1995, 『高麗武人政權研究』, 西江大學校 出版部; 申安湜, 2002, 『高麗 武人政權과 地方社會』, 景仁文化社; 김갑동 외, 2004, 『고려 무인정권과 명학소민의 붕기』, 다운샘.
 - 5) 단 사회집단간의 차별의식을 다루면서 그 일환으로 문관과 무관의 차별의식을 다룬 논문이 있다(오일순, 2004, 「사회집단간의 차별의식과 신분관념」, 『동방학지』 124).
 - 6) 개인은 유일무이하고 고립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재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정신도 개개의 완전한 개별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집합적 현상이라고 한다(C.G. 융 지음, 설영환 옮김, 1986, 『무의식분석』, 선영사, 208쪽). 따라서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는 집단이나 동질성을 가진 집단 내의 구성원은 다른 집단과 차별되는 공통의 정신, 심성을 공유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고려시대 무인에게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 7) 사회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낮게 평가하며 그들에게

콤플렉스(Complex)를 통해서 본 고려의 사회와 인간

서는 이러한 면을 주목하여, 무인들의 열등콤플렉스가 무신정변 전후로 어떻게 지속, 변화하는 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I. 문벌사회의 확립과 무인의 콤플렉스

고려 왕조는 성종 대에 유교적 정치이념에 근거한 지배체제의 정비를 추구하였고, 관료제도에 있어서도 문관과 무관이 분화되었다. 문반은 정치, 무반은 군사라는 직능상의 구별은 있었으나, 같은 고려 왕조의 지배층으로 동렬적인 위치에 있었다.⁸⁾ 현종 대에 거란 침입에 대한 성공적인 방어와 이후의 대외적 안정에 근거하여 중앙집권력의 강화 및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 특히 현종 대에 지배체제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과거 출신 관료들이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고,⁹⁾ 文治主義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무인들이 문반직에 임명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제한되게 되었으며,¹⁰⁾ 이에 따라 고려에서는 국가체제의 운영을 담당한 文人 관료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문인들은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무시’라는 것이 열등감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A.아들러-H.오글러 지음, 설영환 옮김, 1987, 『아들러 심리학 해설』, 선영사, 84~109쪽). 문인들에 의해 무시당하고 차별대우 받은 무인들은 자연히 열등의식, 열등콤플렉스를 형성하였을 것이며, 같은 집단이라는 동질성 때문에 무인들이 가진 열등콤플렉스는 개인별로 다르면서도 동시에 공통 분모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8) 邊太燮, 1961, 「高麗朝의 文班과 武班」, 『史學研究』 11; 1971,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277~280쪽.

9) 朴菴熙, 1973, 「高麗時代 「官僚制」에 대한 고찰」, 『歷史學報』 58, 47~49쪽.

10) 김당택, 2010, 「현종대 과거 출신 관리의 정치적 주도권 장악」, 『고려 양반국가의 성립과 전개』, 전남대학교출판부, 99~106쪽.

과거를 통해 淸要職을 비롯한 국가 운영의 중요 관직을 독점해 나갔으며, 이들 중 일부는 문벌가문으로 전환되어갔다.

문벌가문의 형성은 필연적으로 문벌의식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¹¹⁾ 이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 그들의 문벌의식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자.

……공의 가계도 모두 높은 관리를 배출하였으며, 또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신하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으니 □ 뛰어나다고 할 것이다. 공이 벼슬하기 시작한 처음부터 재상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집을 다스려 화려하게 한 적이 없었으니, 그 또한 일반적인 풍습과는 다른 것이다.¹²⁾

위의 기록은 李公升의 묘지명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공승의 집안은 모두 높은 관리를 배출하였고,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신하로서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 주지하다시피, 문벌이란 어느 한 개인이 출세하여 고위 관료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집안이 몇 세대에 걸쳐 고위 관료를 배출하고, 榮達해야만 문벌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이공승의 집안은 6대조 李希能과 5대조 李謙宜가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공을 세워 공신이 되었으며,¹³⁾ 본인은 知門下省事 參知政事 同中書門下

11) 김병인은 예종대 이후에야 문벌의식이 본격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고 지적하고, 문벌의식이 본격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한 이유를 예종대 후반의 한안인세력과 이자겸세력의 정치적 대립에서 찾고 있다(김병인, 2002, 『高麗圖經』 「人物」條에 나타난 ‘族望’과 고려중기의 정치세력, 『全南史學』 19, 161~171쪽). 하지만 본인의 표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미 문종 15년에 사망한 李子淵이나 李頌의 묘지명에서 문벌임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나 『宋史』에 “士人以族望相高”(『宋史』 권 487, 外國3, 高麗傳)라는 기록 등을 통해 볼 때 예종 이전부터 문벌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문벌의식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2) 김용선 편, 2001a, 『역주 고려묘지명집성』(상), 『李公升墓誌銘』. “公之系 皆爲達官 而又父子俱位極人臣 異於 公自始仕 至于宰相 未嘗理居第爲華靡事 其亦異於常流哉”

13) 『고려사』 권99 열전12 李公升.

복합체(Complex)를 통해서 본 고려의 사회와 인간

平章事に 이르렀고, 공훈은 上柱國, 관계는 金紫光祿大夫에 이르렀다.¹⁴⁾ 이공승의 아버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위 묘지명 기사에 ‘부자가 모두 신하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되어 있으니, 이공승과 마찬가지로 宰臣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위의 기사에 따르면 이공승은 재상이 되어서도 집을 다스려 화려하게 한 적이 없으며, 이것은 일반적인 풍습과는 다른 것이라고 하고 있다. 즉, 고위 관료 내지 문벌 집안의 보통의 경우라면 집을 다스려 화려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부하고 귀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卿相까지 된 李軾의 경우도, 살고 있는 집이 기울어지고 무너져도 고치거나 꾸미지 않았다고 묘지명에 기재되어 있는데,¹⁵⁾ 이는 일반적인 문벌의 삶과 달랐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된 사실일 것이다.

여러 세대에 걸쳐 고위 관료를 배출하여 정치적 권력을 향유하고, 이에 따른 전시과와 녹봉의 수급뿐만 아니라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는 등 사회경제적인 힘까지 가진, 글자 그대로 門閥을 형성한 가문들은 다른 관료 집안과는 차별되었을 것이고 또한 차별을 시도하였을 것이다. 집안을 다스려 화려하게 하였다는 것, 즉 살고 있는 집을 크고 화려하게 꾸민 것은 문벌들이 다른 존재와는 차별되는 문벌집안으로서의 정치적·사회경제적 위세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天자의 마루높이는 9척이요, 제후의 마루높이는 7척이다.’라는 『예기』의 구절을 인용하여 尊卑에 따라 家舍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장한 최승로의 주장¹⁶⁾은 가옥이 신분질서 나아가 정치사회적 권위를 나타내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언명한 것이다. 사회에서 주택의 크기나 위용은 부의 상징이 아니라 서열과 신분의 표출이었으므로,¹⁷⁾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크고 화려하게 꾸민다는 것은

14) 김용선 편, 2001a, 앞의 책, 「李公升墓誌銘」.

15) 김용선 편, 2001a, 앞의 책, 「李軾墓誌銘」.

16) 『고려사』 권93 열전6 崔承老.

본인과 그 가족의 사회적 威勢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증표였다. 따라서 이 시기 문벌들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망을 표현하기 위해 집을 크고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였다.¹⁸⁾ 나아가 제도적으로도 문벌의 권리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다른 계층과의 차등을 강화하려고 하였으며,¹⁹⁾ 族望²⁰⁾의 중시나 확대 등도 다른 집단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려는 문벌의 노력의 소산이거나 그러한 결과 형성된 사회적 풍토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벌가문이 고려왕조를 주도한 시기는 문종 대부터 무신정변까지로 볼 수 있다. 고려 왕조 성립 후 약 150년 만에, 문벌가문 성립의 단초가 두어진 성종 대부터 계산하면 불과 70년 만에 문벌가문이 성립되었다. 세대로 보면 고려 왕조 성립 후 5~6세대만의 일이다. 이공승의 경우 6대조와 5대조는 태조 때 활약한 인물이었다. 성종 대부터 따지면 2~3세대, 길어야 3~4세대만이다.²¹⁾ 이렇게 짧은 시간에 문벌이 형성되고 문벌이 주도되는 사회로 전환되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다른 지배신분과 구별되는 차별적 존재임을 표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빠르게 문벌가문이 성립되면서, 그리고 고려사회를 문벌가문이 주도해가면서 자신과 다른 지배집단과의 차별의식을 형성하고 이를

17)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지음, 박여성 옮김, 2003, 『궁정사회』, 한길사, 133쪽.

18) 예를 들어 대표적 문벌인 李資謙은 “전답을 늘리고 가옥[第宅] 꾸미기를 좋아하여 전답이 연달아 이어지고 가옥의 제도는 극히 사치스러웠다”(徐兢, 『高麗圖經』 권 8, 人物, 「守太師尙書令李資謙」)고 하였다.

19) 여러 대에 걸친 勳舊의 자손들은 군대에 징발하지 말자는 건의가 대표적이다(『고려사』 권6 靖宗 7년 9월 丁未).

20) 徐兢, 『高麗圖經』 권8, 人物, 「守太師尙書令李資謙」; 『宋史』 권487, 外國3, 高麗傳.

21) 박용운은 귀족이나 가문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형성될 수 있는데, 3세대는 경과하여야 여타 지배신분층과 구별되는 귀족가문으로서의 家格을 세울 수 있다고 하였다(朴龍雲, 1977, 「高麗 家産官僚制說과 貴族制說에 대한 檢討」, 『史叢』 21·22합집; 1980, 『高麗時代 臺諫制度 研究』, 一志社, 312-314쪽). 金龍善은 이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2세대만에 도 문벌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金龍善, 1996, 「高麗門閥의 構成要件과 家系」, 『韓國史研究』 93, 10-12쪽).

콤플렉스(Complex)를 통해서 본 고려의 사회와 인간

인간관계, 사회관계에서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사례들을 보자.

㉠ 특히 宣宗에게 총애를 받았으나 영예와 귀함으로써 교만하지 않았다.……공은 宣宗의 조정에서 참으로 때를 만났으나, 사람들이 그 귀함을 싫어하지 않았으니 그 공손함을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²²⁾

㉡ 공은 천성이 관대하고 마음이 넓어 일찍이 목소리와 얼굴빛으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 일이 없었다.²³⁾

㉢ 공은 부유하고 귀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마음은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았고, 사람됨이 순수하고 신중하며 단정하였다.²⁴⁾

㉣ 부유하고 귀하면서도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았고 충성과 신의에 겸하여 검소한 덕도 닦았다.²⁵⁾

㉤ 閔闕 집안에서 生長하였으나 부유함과 귀함으로써 사람에게 교만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다.²⁶⁾

㉠은 任懿에 대한 기록이다. 임의의 집안은 대표적인 문벌가문으로 성장하였다.²⁷⁾ ㉡의 李公壽와 ㉢의 李植, ㉣의 李奕蕤는 고려전기 대표적인 문벌인 慶源李氏이다.²⁸⁾ 이혁유의 열전에는 그가 閔闕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다. ㉤ 金永錫은 고려전기 名門의 하나인 江陵金氏²⁹⁾로 아

22) 김용선 편, 2001a, 앞의 책, 「任懿墓誌銘」. “尤爲宣廟寵遇 然不以榮貴驕……公於宣廟 實謂遭時 人不厭貴 其恭可知”

23) 김용선 편, 2001a, 앞의 책, 「李公壽墓誌銘」. “公天資閔厚 未嘗以聲色加人”

24) 김용선 편, 2001a, 앞의 책, 「李軾墓誌銘」. “公生乎富貴 心不驕傲 爲人純謹端正”

25) 김용선 편, 2001a, 앞의 책, 「金永錫墓誌銘」. “富貴不挾驕心 忠信兼修儉德”

26) 『고려사』 권95 열전8 李子淵 附 李奕蕤. “生長閔闕 不以富貴驕人 人多重之”

27) 이에 대해서는 朴龍雲, 1978, 「고려시대 定安任氏鐵原崔氏·孔巖許氏 家門 분석」, 『韓國史論叢』 3; 2003, 『高麗社會와 門閥貴族家門』 景仁文化社 참조.

28) 慶源李氏에 대해서는 李萬烈, 1980, 「高麗 慶源李氏 家門의 展開過程」, 『韓國學報』 21(一志社)을 참조.

29) 朴龍雲, 1978, 앞의 논문; 2003, 앞의 책, 253쪽.

버지는 문하시중에 오르고 예종 묘정에 배향된 金仁存이다.

이들 다섯 사람의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富貴한 존재라는 점이다. 부하고 귀하다거나 부유하고 귀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또는 영예와 귀함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고귀한 문벌가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들은 고려의 대표적인 문벌가문 출신이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공손하고 교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임의는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않았고, 이공수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았으며, 이식은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았고, 김영석도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 이혁유도 교만하지 않아 존경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러한 사실들이 이들의 묘지명에 기재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들의 행동이 다른 문벌의 일반적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임의는 예종 12년(1117), 이공수는 인종 15년(1138), 이식은 의종 5년(1151), 김영석은 의종 20년(1166), 이혁유는 명종 22년(1192) 각기 사망하였다. 이들은 문벌가문이 극성을 떨치던 때에 주로 활동하였다. 8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사망한 다섯 명의 문벌출신 인사의 기록에서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문벌가문이 극성이던 이 시기에 문벌가문의 오만과 교만이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된다.

가난하고 천한 처지에 있으면 가난하고 천한 것을 행하고, 부하고 귀한 처지에 있으면 부하고 귀한 일을 하며, 夷狄의 처지에 있으면 夷狄의 처지에 맞는 것을 행하였으니, 이것이 공의 뜻이었다.³⁰⁾

30) 김용선 편, 2001a, 앞의 책, 「權迪墓誌銘」. “儋貧賤行乎貧賤 儋富貴行乎富貴 儋夷狄行乎夷狄 此其志也”

위 기사는 의종 즉위년(1146) 사망한 權迪의 묘지명에 나오는 것인데, 이는 『중용』에서 인용한 것이다. 『중용』의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군자의 도리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주어진 처지나 자신의 본분에 맞게 행동하라는 의미이다.

신분제 사회에서, 그리고 문벌이 형성되어 득세하고 고착화되던 당시의 사회적 현실에서 이 구절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권적의 묘지명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중용』에는 이 구절 앞에 “평소 자신의 위치에 따라 행할 뿐이요, 그 외의 것은 바라지 않는다.”³¹⁾라는 구절이 있다. 그러므로 권적이 『중용』에서 받아들여 자신의 뜻으로 삼고 있던 이 구절은, 원래의 의미 그대로 군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견지하라는 뜻으로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사회적 지위가 다른 존재들을 구분하고 그들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 즉 문벌가문과 그렇지 못한 가문, 지위나 신분이 높은 존재와 그렇지 못한 존재를 구분하고, 그들 사이의 뚜렷한 界線을 긋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가난하고 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한 처지에 맞게 행동하고, 부하고 귀한 존재는 부하고 귀한 처지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문벌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최정상에서 고려를 이끌어가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들의 행동은 사회의 다른 존재들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타인에 대한 행동에서 쉽게 교만과 오만으로 나타나고 비추어졌을 것이다. 앞의 사례만이 아니라 예종 12년(1117) 사망한 尹彦榮의 처 柳氏의 묘지명에도 “귀함과 총애가 비록 지극하였지만 마음으로도 스스로 교만하지 않았다.”³²⁾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교만과 오만은 문벌가문이 이끌어가던 당시 사회에서 소수 문벌가문 출신 관료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당시 사회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민감한 문제로 다가오

31) 『中庸』 “君子素其位而行 不願乎其外”

32) 김용선 편, 2001a, 앞의 책, 「尹彦榮妻柳氏墓誌銘」. “貴寵雖至 而心不自矜”

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문벌의 우월의식이 오만과 교만으로 표출되었을 때 이들의 행동에서 직접적으로 상처를 받고 피해의식 즉 열등 콤플렉스를 가지게 되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문벌의 구성원은 최고지배층으로서 대부분 관료집단이었다. 따라서 이들과 자주 접하고 이들을 따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벌의 오만과 교만에 직접적으로 자주 노출되었을 것이다.

각 계급의 구성원들은 자신들보다 한 단계 높은 계급에서 유행하는 생활양식을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생활양식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이상을 추구하는 데 자신들의 에너지를 쏟아 붓는다³³⁾고 한다. 그런데 문벌가문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유교정치이념에 따른 지배체제 정비와 과거제이다. 고려국가에서 국가의 기본방향인 유교체제이념을 구현하는 업무와 국왕을 近侍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것은 淸要職이다. 청요직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신분 등에 엄격한 자격조건이 필요하였지만 무엇보다 학문적 능력이 우선되었는데, 청요직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많은 경우 귀족의 자제였고 이들 중 60~70%는 다시 宰樞로 승진하였다.³⁴⁾ 따라서 문벌의 공통분모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학문적 능력이었다.

공은 비록 勳閥에서 태어났으나 子弟 두 명이 모두 文章으로 □□하였으므로, 조정에서 존경하고 부러워하였다.³⁵⁾

문벌로서 갖추어야 할 최고 덕목은 바로 학문과 그로부터 비롯된 문학적 능력 및 교양이었다. 문벌 스스로가 자신들의 위상을 勢力보다는 문

33) 토르스타인 베블런 지음, 김성균 옮김, 2005, 『유한계급론』, 우물이 있는 집, 102쪽.

34) 박용운, 1997, 「고려시대의 淸要職에 대한 고찰」, 『高麗時代 官階·官職 研究』, 고려대학교 출판부.

35) 김용선 편, 2001a, 앞의 책, 「尹宗謫墓誌銘」. “公雖起自勳閥 子弟二人 皆以文章□□朝欽艷”

컴플렉스(Complex)를 통해서 본 고려의 사회와 인간

장과 덕행에서 찾고 있었다.³⁶⁾ 문벌은 기본적으로 학문을 소양으로 하는 문인관료집단에서 출발하였고, 따라서 비록 문벌가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학적 소양을 갖춘 문인관료집단은 文을 매개로 동질성을 공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지배계층의 일원이지만 문학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존재들인 무인들은 문벌가문이 주도하는 고려사회에서 소외되었다.

毅宗 때에 이르러 文臣들이 더욱 번성하였다. 공의 나이 16세 때 貴門의 자제들과 친분을 맺었다. 공은 무관인 御牽龍行首 吳光陟과 李光挺 등을 끌어들이려고 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다.³⁷⁾

위 사료는 유자량 묘지명의 기록으로 무신정변이 발생하기 전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유자량은 茂松庾氏로 문벌가문 출신이었다.³⁸⁾ 그는 다른 문벌가문의 자제들과 친교를 맺고 일정한 모임을 만들었다. 모임 구성원의 공통점은 문벌과 더불어 儒學에 대한 소양을 갖춘 집안, 즉 문인 가문 출신이라는 점이다.³⁹⁾ 그런데 유자량은 吳光陟, 李光挺, 文章弼⁴⁰⁾ 등을 이 모임에 끌어들이려 했다. 모임의 다른 사람들은 반대하였다. 반대의 이유는 이들이 무인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이 모임에서는 유자량의

36) 채웅석, 1998, 「고려 문종대 관료의 사회적 위상과 정치운영」, 『역사와 현실』 27, 125쪽.

37)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권36 墓誌 「銀青光祿大夫尙書左僕射致仕庾公墓誌銘」, “方毅廟時 山東寢盛 公年十六 與貴門子弟約爲交契 公欲引虎官御牽龍行首吳光陟 李光挺等與焉 衆莫肯之”

38) 茂松庾氏에 대해서는 朴龍雲, 1987, 「고려시대 茂松庾氏家門 분석」, 『李丙燾九旬紀念 韓國史學論叢』; 2003, 『高麗社會와 門閥貴族家門』, 景仁文化社 재수록 참조.

39) 『고려사』 권99 열전12 庾應圭 附 庾資諒에는 儒家子弟들과 契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다.

40) 『고려사』 권99 열전12 庾應圭 附 庾資諒에는 吳光陟과 文章弼을 끌어들이려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설득으로 무인들을 받아들이지만, 당시의 일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는 학문적 소양을 갖춘 문인과 그렇지 못한 무인에게서 분명한 장벽이 있었다.

이러한 장벽이 처지는 데는 고려국가의 유교체제이념의 구현과 문치주의가 있었다. 姜民瞻의 경우 무반으로 출사하여 상장군에 이르렀는데, 그는 목종 때에 과거에 급제한 과거출신자였다.⁴¹⁾ 그런 강민침이 무반직을 택했다는 것을 보아 무신의 지위가 문신에 비해 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⁴²⁾ 하지만 현종 대 이후 무신들은 문반직에 임명될 수 없었고, 문인들에 비해 무인들의 위상은 격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현종 5년 일어난 金訓과 崔質 등 무인들의 난이 실패로 돌아간 후, 문인과 무인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더군다나 좋은 가문 출신의 무반⁴³⁾ 이외에 行伍나 賤人 출신 등 미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무반에 많이 진출⁴⁴⁾함에 따라 무인의 위상은 더욱 격하되고 무인에 대한 문인의 차별의식은 더욱 강화되었다.

문인과 무인은 사회적으로 서로 유리되어 있었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직이 3품으로 한정된 것을 비롯한 제도적, 사회적인 여러 이유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무인들은 학식이 없다는 이유로 문인들의 비하 대상이었다.⁴⁵⁾ 심리적 장벽이 두텁게 쳐졌고, 무인들의 문인 또는 문벌가문에 대한 피해의식, 열등콤플렉스가 자연히 형성되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문인들의 오만과 교만의 행동을 벌일 때 무인들은 그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다.⁴⁶⁾ 대표적인 사례가 金富軾의 아들인 金敦中이 강제로 鄭仲夫의

41) 『고려사』 권94 열전7 姜民瞻.

42) 김당택, 2010, 앞의 책, 99~106쪽.

43) 이에 대해서는 박용운, 1978, 「고려전기 文班과 武班의 身分 問題」, 『韓國史研究』 21·22; 2003, 『高麗社會와 門閥貴族家門』, 景仁文化社 참조.

44) 邊太燮, 1961, 앞의 논문; 1971, 앞의 책, 314~317쪽.

45) 오일순, 2004, 앞의 논문, 160쪽.

46) 毅宗 대에 毅宗에 의해서 反文臣의이고 反儒敎의인 사회분위기가 조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문신세력에 반대하는 기운이 사상적으로는 非儒敎思想의

콤플렉스(Complex)를 통해서 본 고려의 사회와 인간

수염을 불태운 일⁴⁷⁾과 기거주 韓賴가 대장군 李紹膺의 뺨을 때린 것이다.⁴⁸⁾ 徐恭은 문신들의 교만함을 미워하여 무신들에게 예의를 다하여 대우하였다고 하는데,⁴⁹⁾ 이 사례를 통해 당시 일반적으로 문신들은 무신들에게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워한 서공은 오히려 무시당하는 무신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대한 것이다.

이처럼 같은 지배계층의 일원이면서도 문벌가문을 형성하고 있는 문인들은 무인들을 차별 대우하였고,⁵⁰⁾ 같은 지배계층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능력이나 교양 때문에 차별과 무시의 대상이 되는데도 문인과 무인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한계는 무인들의 열등콤플렉스를 더욱 확대 재생산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5품인 문신 한희가 자신보다 높은 중3품의 무신인 대장군 이소응을 때린 것에 대해 정중부는 “소응이 비록 武夫라도 벼슬이 3품인데 어찌 이렇게 심하게 모욕을 주는가?”라고 따지고 있는데,⁵¹⁾ 이 중 ‘비록 武夫’라는 표현은 정중부가 의도하지 않고 무심코 내뱉은 말로 보인다. 그런데 이 무심코 내뱉은 말 속에서 문인에 비해 무인이 떨어진다는 열등콤플렉스가 잠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콤플렉스가 고위 무인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내면화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문인과 무인의 단절은 더욱 심화되고, 열등콤플렉스는 분노와 적대감

강조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河炫綱, 1981, 앞의 논문). 이러한 反文臣的, 反儒敎的인 사회분위기를 감지한 문인들이나 문벌에서는 그러한 사회분위기를 초래한 자신들에 대한 자성이나 위협에 대한 감지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만과 교만에 대한 경계였을 것이다. 동시에 반문신적이고 반유교적인 사회분위기는 한편으로 무인들의 콤플렉스를 더욱 자극하고 그것이 표출되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47) 『고려사』 권128 열전41 叛逆2 鄭仲夫.

48) 『고려사절요』 권11, 毅宗 24년 8월 丙子.

49) 『고려사』 권94, 열전7 徐熙 附 徐恭.

50) 尹瑢均, 1930, 앞의 논문.

51) 『고려사절요』 권11 毅宗 24년 8월 丙子. “紹膺雖武夫 官爲三品 何辱之甚”

을 불러왔다. 문관들에게 오랫동안 굴욕을 당한 무관들은 분노하고 있었다.⁵²⁾ 대장군이 된 宋有仁이 문관들과 교류하였는데 무관들은 항상 이를 미워하였다⁵³⁾는 기록에서 당시 무인들이 문인들을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문인들과 교류하는 무인들까지도 백안시했음을 알 수 있다. 열등 콤플렉스는 오랫동안 내면의 세계에서 억눌려 왔을 것이며, 여기에서 좌절과 분노, 적대감이 재생산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무신정변이 발생했을 때 “문인의 冠을 쓴 자는 비록 胥吏라도 모조리 죽이고 씨를 남기지 마라.”⁵⁴⁾고 하고 무인이라고 하더라도 복두를 쓴 사람까지 살해하거나⁵⁵⁾ 죽은 문인들의 집을 부셔버리는⁵⁶⁾ 등 더욱 잔인하고 극단적인 결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II. 콤플렉스의 지속과 변화

1. 지속

의종 24년 무신정변이 발생하여 문신들이 대거 숙청되고 무신정권이 성립되었다. 명종 3년에 金甫當의 난이 일어났을 때 또 다시 많은 문인들이 살해되었다. 무인들은 정권을 장악하고 문인들의 위에서 군림할 수 있었다. 尹麟瞻 같은 경우는 문관들이 몰락한 후 무관들과 같이 일을 볼 때 매번 견제를 당하면서도 하라는 대로 복종하여 자기 몸을 보존했다.⁵⁷⁾ 이

52) 『고려사절요』 권12 明宗 9년 5월. “武官見屈於文官 久矣 能無憤乎?”

53) 『고려사』 권128 열전41 叛逆2 鄭仲夫 附 宋有仁.

54) 『고려사』 권128 열전41 叛逆2 鄭仲夫.

55) 『고려사절요』 권11, 毅宗 24년 8월 丙子.

56) 『고려사』 권128 열전41 叛逆2 鄭仲夫.

콤플렉스(Complex)를 통해서 본 고려의 사회와 인간

와 같이 문인과 무인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그러면 무인들이 문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콤플렉스, 학문에 대한 콤플렉스는 극복되었을까?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나이 15세쯤에 門蔭으로 벼슬길에 올라 掌牲署丞이 되고, 뒤에 別將으로 바뀌어 御牽龍行首가 되었다. 관직은 비록 東班에서 시작하여 西班에 이르렀지만, 그 뜻은 文學에 두지 않은 적이 없었다. 대개 부친이 비록 兩朝의 將相이라는 극히 높은 지위에 올랐으나 다만 과거[桂籍]에 오르지 못했음을 한스럽게 여겨, 아들이 祖業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공은 이로 말미암아 힘써 공부하고 게으르지 않아서 至元 16년 己卯年の 과거에 응시하여 단번에 2등으로 합격하였다. 그 해에 처음 攝郎將에 임명되었다가 뒤에 國學直講으로 바뀌었으니, 이는 공이 아버지가 가진 憤을 풀 것이다.⁵⁸⁾

위는 金恂 묘지명에 나오는 내용이다. 김순은 管高麗軍都元帥를 역임한 金方慶의 아들이다. 문음으로 掌牲署丞이 되었다가, 뒤에 別將, 御牽龍行首가 되었다. 그런데 위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순은 비록 武班이 되었지만 학문에 뜻을 두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점, 그의 아버지 김방경은 무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는 점, 아들인 김순이 과거에 합격하여 문반이 되기를 바랐다는 점, 이 때문에 김순이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에 합격하였으며 이에 國學直講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아버지 김방경의 憤을

57) 『고려사』 권96, 열전9 尹瓘 附 尹鱗瞻.

58) 김용선 편, 2001b, 『역주 고려묘지명집성』(하), 「金恂墓誌銘」. “年方志學 以門蔭入仕 爲掌牲署丞 後改爲別將御牽龍行首 職雖從東至西 其志未嘗不在文學 蓋嚴君雖位極兩朝將相 惟以未參桂籍爲恨 冀嗣子之能復祖業故也 公由是力學不倦 至至元十六年 己卯春場 一舉爲金榜副元 是年初拜攝郎將 後改爲國學直講 此公之能伸大人之遺憤者也”

폰 것이라는 점 등이다.

김방경은 무인집권기부터 충렬왕 때까지 살았던 사람이다. 이 시기 고려군의 가장 뛰어난 장수였으며, 최고지휘관에 오른 인물이다. 일생을 무장으로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고, 그 공에 의해 공신이 되고 上洛公에 임명되었다. 그런 그가 본인이 학문을 하지 못하여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것, 그래서 문신이 되지 못한 것을 한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아들 김순도 무반이 되었지만, 그는 아들이 학문을 하여 과거에 합격하고 문반으로 출세하기를 바랐다. 김방경의 아버지, 즉 김순의 할아버지인 金孝印은 과거에 합격하여 兵部尙書 翰林學士를 역임한 인물이다.⁵⁹⁾ 따라서 위의 묘지명에 祖業이라고 묘사된 대로 김방경은 자신의 부친이 과거에 합격한 문반관료 출신이었으므로, 자신도 과거에 합격하여 문반관료가 되는 것이 희망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무신정변으로 무신정권이 성립하여 무인 우위의 사회가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방경은 여전히 학문을 하여 과거에 합격하고 이에 따라 문인 관료로 출세하는 것에 더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그의 아버지가 문반출신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신정권 성립 이후에도 고려사회에서는 武보다는 文을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풍토가 계속되었던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문과 무에 대한 다음의 대비되는 두 평가를 보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용맹한 장부가 청렴하고 공평하다고 칭찬을 듣는 일은 적다.⁶⁰⁾

무릇 儒者는 비록 소박하고 꾸밈이 없으나, 모두 經書를 익히고 염치를 알고 있습니다.⁶¹⁾

59) 『고려사』 권104 열전17 金方慶.

60) 김용선 편, 2001b, 앞의 책, 「襄廷芝墓誌銘」. “介胄勇夫 少有廉平之譽”

첫 번째 기사는 裒廷芝의 묘지명에 나오는 것이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용맹한 장부가 청렴하고 공평하다고 칭찬 듣는 일은 적다고 한다. 즉 무장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대부분 청렴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무장은 일반적으로 탐욕스럽고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무장은 탐욕스럽고 불공평할까? 무장은 학문에 뜻을 둔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학문은 단지 입신출세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덕성의 함양이 학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⁶²⁾ 학문을 하여야만 氣를 기를 수 있다.⁶³⁾ 氣는 天地의 正氣로서, 氣를 기르는 것은 義를 기르는 것이다.⁶⁴⁾ 즉 학문을 하지 않으면 올바른 도리를 알지 못하고, 따라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게 된다. 올바른 도리를 알지 못하고 자신을 절제하지도 못하는 무인은 治者の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다. 治人은 修身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문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학문을 하지 않아 修身을 하지 못한 자는 청렴하고 공평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格이 낮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기사는 원 간섭기 문인관료인 李兆年의 묘지명에 나오는 내용이다. 여기서는 儒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앞의 배정지 묘지명에 있는 무인에 대한 평가와 대비된다. 儒者는 학문을 하여 經書를 익혔으므로 軀치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軀치를 안다는 것은 청렴하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말과 대비된다.

물론 묘지명의 작성자들이 대부분 문인인 유학자이므로, 문과 무에

61) 李齊賢, 『益齋亂藁』 권7 碑銘 「有元高麗國誠勤翊贊勳節功臣重大匡星山君贈諡文烈公李公墓誌銘」. “夫儒者 雖朴拙 皆能習經書 識廉恥”

62) 윤훈표, 2007, 「명예와 수치심의 사회적 배경과 기준」, 『고려시대 사람들의 삶과 생각』, 해안, 193쪽.

63) 崔溼, 『拙菴千百』 권1 「故司憲持平金君墓誌銘」. “力學以養氣”

64) 鄭道傳, 『三峰集』 권4 「李浩然名字後說」. “夫所謂浩然者 乃天地之正氣也……而其養之也 又非私意苟且而爲也 舍之不可也 助之不可也 必有事焉 集義而已矣”

대한 이들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사회에서 계속해서 武보다는 文이 선호되었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은 분명하다. 앞의 김방경의 사례 이외에도 사마시에 합격했으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蔭敍로 관직에 진출한 尹承解는 공로에 의해 神虎衛別將이 제수되자 무반직은 본래 그가 원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받지 않았다.⁶⁵⁾ 윤승해는 음서로 관직에 나갔지만 武班이 되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⁶⁶⁾ 이는 당시 武에 비해 文의 위상이 높았음을 보여 준다.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최고 영광은 자신의 학문을 인정받는 것이다. 과거 급제는 학문을 하는 자라는 가장 명확한 표징이자 학문 하는 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재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과거급제는 본인의 학문에 대한 공적인 평가를 받고, 학문을 통해 배운 바를 사회에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받는 것이므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었다. 따라서 원 간섭기에 印侯는 과거에 급제하는 영광이 부러워 배움이 없는 아들 印承光을 과거 보게 하였고,⁶⁷⁾ 趙浚의 어머니는 아들이 많아도 과거에 급제한 자가 없으니 무슨 소용이겠느냐고 한탄하였다.⁶⁸⁾ 이러한 기록들도 당시 학문하는 사람, 문인의 사회적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무인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武보다는 文이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무인집권기의 문인지식층이었던 李仁老는 “천하의 일 중에서 貴賤이나 貧富로써 높게 하든가 낮게 하든가 할 수 없는 것은 오직 文章뿐이다.……문장은 스스로 일정한 가치가 있어 富로써 도 이를 감소시키지 못한다.”⁶⁹⁾라고 문장, 즉 학문에 대한 자부감을 표현

65) 『東國李相國集』 권35, 「尹承解墓誌銘」.

66) 金塘澤, 1987 「崔氏政權과 文臣」, 『高麗武人政權研究』, 세문社, 132쪽.

67) 『고려사』 권123 열전36 嬖幸1 印侯.

68) 『고려사』 권118 열전31 趙浚.

69) 李仁老, 『破閑集』 권下. “天下之事 不以貴賤貧富爲之高下者 惟文章耳……文章自

콤플렉스(Complex)를 통해서 본 고려의 사회와 인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평가가 자리 잡고 있는 사회에서 무인들은 이전에 가졌던 문인에 대한 콤플렉스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무인들은 물론 나름대로 열등콤플렉스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김보당의 난이 일어났을 때 무인들은 문관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거나 강물에 빠뜨리는 등 약 10일 동안 문인은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이때 낭장 金富는 정중부와 李義方에게 무인들 중 자녀가 있는 사람은 문인들과 通婚해서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킬 것을 건의하였다.⁷⁰⁾ 물론 김부의 건의는, 김보당의 난에 문인들이 연루되었다는 김보당의 증언과 이로 인해 문인들이 대거 학살됨에 따라, 이후 무인들이 무인 지배에 반발하지 않고 협조하게 하기 위해 문인들과 무인들의 통혼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무신정변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문인들과 무인들의 통혼은 결국 무인들과 문인들의 차별을 없애는 한 방법이 될 것이며, 이는 무인들이 문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열등의식 내지는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무인들이 문관직을 차지하는 방법이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중요 관직은 문관직이었으므로, 정권을 장악한 무인들이 적극적으로 문인들의 관직이었던 고위 관직이나 중요 관직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⁷¹⁾ 특히 淸要職과 같이 과거급제자 출신으로 능력이나 가문, 학문적인 면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임명되던 가장 영예스러운 관직들까지도 무인들이 차지하였다. 경대승에게 承宣을 제수할 뜻을 明宗이 비추자, 승선은 왕명의 出納을 담당하는 직책이므로 儒者가 아니면 맡을 수 없다고 경대승은 사양하였다.⁷²⁾ 이처럼 儒者가 말아야만 하는 승선

有一定之價 富不爲之滅”

70) 『고려사』 권128 열전41 叛逆2 鄭仲夫.

71) 邊太燮, 1961, 위의 논문; 1971, 위의 책, 322~327쪽.

72) 『고려사』 권100 열전13 慶大升.

직을 무인집권기에는 문자를 모르는 다수의 무인들이 역임하였다.⁷³⁾ 또한 글을 알지 못했던 무인인 崔世輔는 同修國史에 임명되었다.⁷⁴⁾ 이처럼 무인들이 문관직을 차지한 것은 단순히 문관직이 고위관직이고 중요관직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학문적 능력이 우선시되고 과거급제자들이 주로 임명되는 관직을 무인들이 차지한 것은 학문에 대한 선망, 학문에 대한 콤플렉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

최충헌의 사위인 任孝明이 科擧에 급제했으므로, 왕은 즉시 內侍에 속하게 하고 宣旨를 내려서 임시로 閣門祇候에 임명하였다. 朴晉材는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매우 호사스럽고 성대했으며, 최충헌은 손님들을 데리고 갔다. 새로 급제한 임효명의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불러 들어서 술상을 차려 주었는데 매우 사치스러웠으며, 또 高達坂으로부터 加造里에 이르는 사이에 연달아 彩棚을 설치했고 伎樂과 雜戲를 크게 벌여 놓아 구경꾼이 담장을 이룬 것 같았다.⁷⁵⁾

무신정권의 집정자인 최충헌의 사위 임효명이 과거에 급제했다. 최충헌의 조카 朴晉材는 축하하는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었고, 최충헌은 이 연회에 손님들을 데리고 가서 축하하였다. 더군다나 임효명의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불러 술상을 차려주었는데, 매우 사치스러웠다. 또한 高達坂으로부터 加造里 사이에 무대를 설치하고 크게 잔치를 벌였다. 사위의 과거 급제를 축하하기 위해 화려하게 잔치를 베풀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불러 성대하게 술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위의 기사를 통해 최충

73) 邊太燮, 1976, 「高麗의 中樞院」 『震檀學報』 41, 67쪽.

74) 『고려사』 권100 열전13 崔世輔.

75) 『고려사』 권129 열전42 叛逆3 崔忠獻. “忠獻女婿任孝明登第 王卽屬內侍 下宣旨 權補閣門祇候 晉材爲設賀宴 盛陳羅綺 忠獻引賓客赴之 新及第過者 輒邀致 杯盤 極侈 又自高達坂 至加造里 連亘結彩棚 大張伎樂雜戲 觀者如堵”

현이 그의 사위 임효명의 과거 급제에 얼마나 기뻐했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무신정권의 최고 집정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충헌은 사위의 과거급제를 한없이 자랑스럽고 영광된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단순히 문인의 관직을 힘으로 차지한 존재가 아니라 과거급제라는 공증된 과정을 거쳐 문관의 자리에 오른 사위에 대한 자랑스러움에서 이 시기 무인들이 가지는 문인들에 대한 선망과 문인들의 학문에 대한 열등콤플렉스의 일 단면을 추찰할 수 있다. 따라서 문관직을 차지하는 것은 한편으로 문인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2. 변화

무신정권이 성립한 이후에도 문인들의 무인들에 대한 우월감과 거기에서 비롯된 무인들의 문인들에 대한 콤플렉스는 변화되지 않고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들이 정권을 장악하여 무신정권이 지속되면서, 그리고 계속되는 전란과 새로운 유학의 전래 등에 따라 무인들과 문인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는 느낌, 우월의식과 콤플렉스는 조금씩 의미 있는 변화를 겪게 있었다.

다음의 기사를 살펴보자.

옛 말에 이른바 군자라고 함은 德行으로 말하는 것인가, 功業으로 말하는 것인가. 나는 다만 덕행일 뿐이고 공업은 아니라고 말한다. 왜 그러한가. 덕행은 마음에 달려 있고 공업은 때에 달려 있는 것인데,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은 사람이 닦을 수 있으나 때에 달린 것은 하늘이 주는 바이니, 능히 사람이 닦을 수 있는 것을 닦으면 군자가 되는 것이다. 대체로 덕행은 충과 효로 바탕을 삼는 것인데, 충효로 당시에 이름을 떨친 이는 우리 判

三司 相君이다.⁷⁶⁾

위의 기사는 김방경의 아들인 김순의 묘지명에서 발췌한 것이다. 김순은 아버지 김방경의 열망에 따라 과거 시험을 준비해 합격한 인물임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김순의 묘지명에서 김순을 君子로 지칭하면서, 君子의 조건을 말하고 있다. 군자는 功業보다는 德行에 의해 결정되는데, 왜냐하면 공업은 사람이 결정할 수 없는 조건인 시대에 달려 있는 반면 덕행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이어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덕행이며, 가장 중요한 덕행의 근본은 忠과 孝라고 하고 있다. 이 기사를 통해 만약 충효를 다할 수만 있다면 무인이라고 하더라도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더불어 金開物의 묘지명에 나오는 다음 기사도 주목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품은 게으름이 많고 또 학문에 힘써 氣를 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간혹 세대에 따라 출세하여 아내와 자식에게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한다. 일반 사람이야 그것을 옳게 여기겠지만 군자의 의논에는 어긋나는 점이 있다. 의로움과 이익됨을 밝히고 出處를 살피는 데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옳다 하거나 옳지 않다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영예와 수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대체로 없다. 하물며 말세여서 선비들이 정해진 의논 없이 복을 따르고 재앙을 막느라고 들어와서는 주인노릇하고 나가서는 종노릇을 하는 때에, 비로소 中道를 가면서 홀로 다시 굳건하게 스스로 처신한다면 청렴한 선비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⁷⁷⁾

76) 김용선 편, 2001b, 앞의 책, 「金恂墓誌銘」. “古所謂君子者 德行云乎哉 功業云乎哉 予曰 惟德行耳 非功業也 何也 德行在心 功業在時 在心者 人所修也 在時者 天所授也 能修人之所可修者爲君子耳 夫德行本乎忠孝 能以忠孝立揚於當世者 惟我判三司相君有焉”

77) 崔澐, 『拙藁千百』 권1 「故司憲持平金君墓誌銘」. “東方人性多慢 又不力學以養氣

김개물은 원 간섭기를 살았던 인물이다. 원래 이름은 金瑞廷인데 김개물로 개명하였다.⁷⁸⁾ 開物은 『周易』에 나오는 말로, 천하의 뜻에 통할 수 있고, 천하의 業을 정할 수 있으며, 천하의 의심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開物하여야 한다는 것에서 따온 것이다. 이는 유교적 이상정치의 구현을 바라는 것으로, 김개물로의 개명은 이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었다.⁷⁹⁾ 그러므로 이 묘지명에는 김개물의 삶이 철학이 담겨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위 묘지명 작성자는 고려후기의 유명한 유학자인 崔瀼이다. 따라서 위의 기사에는 원 간섭기를 살았던 儒者들의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위 기사에도 군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세속에 따라 출세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바이며, 군자의 삶은 다르다는 것이다. 군자는 우선 학문에 힘써 氣를 길러야 하는 존재이다. 氣는 天地의 正氣로서, 氣를 기르는 것은 義를 기르는 것이다.⁸⁰⁾ 氣를 길러야만 世俗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르게 행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청렴한 선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리에서 君子 내지 올바른 선비는 태어나거나 원래부터 규정된 존재가 아니라 본인의 노력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학문을 통해 올바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올바름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군자이다. 최해가 쓴 朴華의 묘지명에는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서 설 수가 없다.”⁸¹⁾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에게 있어 학문의

故或圖隨世立身 飽煖妻孥 庸人是之 而有乖於君子之論 至如明義利審出處 不以人之是非爲其榮辱者 盖無之也 矧屬衰季 士無定議 順福逆禍 入主出奴之際 酒能中行 獨復介然自處 則不曰廉士哉”

78) 『고려사』 권106 열전19 金暉 附 金開物.

79) 朴晉勳, 2008, 「고려시대 사람들의 改名」, 『東方學志』 141, 157~158쪽.

80) 鄭道傳, 『三峰集』 권4 「李浩然名字後說」.

81) 崔瀼, 『拙藁千百』 권2 「故密直副使致仕朴公墓誌」. “人無學 無以立”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학문을 하여야만 세상에서 몇몇한 인간으로 대우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무인도 학문을 하여 올바른을 알고 올바른을 실천하여 군자가 될 수 있고 소가 될 수 있다.

다음 글을 살펴보자.

나는 늙었으므로 글 쓰는 것에 게을렀지만, 스스로 생각하건대 평생 동안 서로 知己로 지내왔으니 의리상 사양할 수 없다고 하여, 붓을 잡아 그 첫머리에 ‘春軒先生墓銘’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어떤 사람이 힐문하기를 “春軒은 武官으로서 일어났고, 또 나이가 당신보다 여섯 살이나 적습니다. 당신은 그러헌데도 이 사람을 선생이라고 하였으니,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⁸²⁾

위 기사는 충목왕 1년 사망한 崔文度 묘지명의 일부로, 지은이는 李齊賢이다. 최문도는 武官 출신이었고 나이는 이제현보다 여섯 살이나 어렸는데도, 이제현은 최문도의 묘지명을 쓰면서 ‘先生’이란 칭호를 붙였다.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武官 출신자에게 존칭의 의미로 선생이란 칭호를 붙인데 대해 의혹을 가진 사람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이제현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내용이 장황하지만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춘헌은 光陽君 誠之의 아들로, 贊成事 大提學으로 致仕한 毗一이 그의 할아버지이고, 戶部尙書 翰林學士로 致仕한 侶가 그의 증조부이며, 贊成事 大司學으로 致仕한 金暉은 그의 외조부니, 진실로 학문에 뛰어난 搢紳의 후손입니다.

82) 李齊賢, 『益齋亂稿』 권7 碑銘 「有元高麗匡靖大夫都僉議參理上護軍春軒先生崔良敬公墓誌銘」. “予老矣 懦於紀讓 自以平生相爲知己 義不可辭 把筆題其端曰 春軒先生墓銘 或詰之曰 春軒起自將官 且其齒下於子六年 子乃先生之 豈有說乎”

복합(Complex)을 통해서 본 고려의 사회와 인간

(2) 그러므로 光陽君이 德陵(忠宣王)의 신임을 얻어 기밀을 맡고 관리의 인사를 전담한 것이 20여 년이 되어 명성과 권세가 대단하였습니다. 춘헌은 원나라 조정에서 宿衛하여 몽고의 문자와 말을 익혀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귀족들과 함께 거처했으며, 가족으로 만든 화살통과 새의 솜털로 만든 모자를 쓴 권력자들과 교류하였으니, 마땅히 부귀하고 교만할 만하였습니니다.

(3) 그러나 格物, 致知, 修己, 理人의 道에 그 문을 찾아 들어가지 않음이 없었으니, 생각해보건대 나가면 손에 활과 칼을 잡고, 들어오면 책을 읽었습니다. 濂溪(周敦頤)와 二程(程顥와 程頤), 晦庵(朱熹)의 책을 모두 모아 읽느라 밤이 깊어서야 잠자리에 들고 닭이 울면 일어났으며, 반드시 節目을 자세히 구분하여 깊은 뜻을 마음으로 깨닫고 몸소 실천한 뒤에야 그쳤습니다. 온화하기는 봄별과 같고 고요하기는 가을 물결과 같아서, 비록 종이냐 첩이라고 하더라도 일찍이 한 번도 그가 성급하게 화를 내거나 갑자기 기뻐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4) 덕릉이 西蕃으로 유배를 가니 춘헌은 광양군을 모시고 洮(臨洮)와 隴(隴西)에까지 가서 문안을 드렸습니다. 왕복 만 리나 되었지만 유순하고 즐거운 얼굴빛으로 게으름 피우지 않고 더욱 공경하였으니, 광양군이 마치 집안 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편안하였습니다. 忠肅王이 원나라에 들어갔을 때 瀋王府의 일을 벌이려는 자들이 형제간의 싸움을 일으키려고 선동하며 참소하는 말이 번갈아 끊어올라 온전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춘헌은 몸은 머무는 곳을 따르고 뜻은 올바름을 따라 정직하면서도 능히 공경하여 피차간에 아무 유감이 없었습니다.

(5) 양친의 3년상을 치르고 家廟를 세워 돌아가신 분 섬기기를 살아 계신 것처럼 하였습니다. 자녀인 아들과 딸은 모두 첫 부인 金氏가 낳았으나, 羅夫人을 잘 대하여 또한 그가 계모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6) 아, 춘헌은 자신의 도리를 다하여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집에서 행하여 나라에 미치게 하였으며, 살아서는 백성들의 기대를 받았고 죽어서는 끝없는 슬픔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은) 구하려고 하여도 대개 절대로 찾을 수 없고, 어찌다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

고 자처하고 선비[儒]라고 자만하면서 춘헌을 선생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올바른 일이겠습니까?⁸³⁾

편의상 붙인 번호에 따라 설명하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문도는 무관 출신이지만 그 가계는 원래 학문에 뛰어난 搢紳 집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훌륭한 선비 집안의 핏줄을 타고 태어난 최문도는 선생이란 칭호를 받을 만 하다는 것이다. (2) 최문도는 명성과 권세가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원의 조정에서 숙위하면서 귀족이나 권력자들과 교류하였다. 따라서 마땅히 부귀하고 교만할 만한 존재였으나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3) 최문도가 부귀하고 교만하지 않았던 이유로 이제현은 학문을 지적하고 있다. 최문도는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했고, 따라서 修身을 이루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최문도는 濂洛 학파의 性理學 서적 보기를 즐겨하였으며,⁸⁴⁾ 博學強記한 데다가 특히 性理의 글에 조예가 깊어서, 동방의 문사들이 질의할 것이 있으면 모두 그를 찾아가서 묻는다⁸⁵⁾고 할 정도였다. 학문에 대한 열정을 통해 문인들에 비해 뒤떨어지

83) 李齊賢, 『益齋亂稿』 권7 碑銘 「有元高麗匡靖大夫都僉議參理上護軍春軒先生崔良敬公墓誌銘」. “(1) 春軒 光陽君諱誠之之子也 贊成事大提學致仕諱毗一 其王父也 戶部尚書翰林學士致仕諱召 其曾王父也 贊成事大司學致仕金諱暉 其外王父也 固儒雅搢紳之胄也 (2) 然而光陽君週知於德陵 典機密 專選舉 二十餘年 聲勢藉甚 春軒宿衛中朝 習蒙古字語 綺襦紈袴之與處 韋韜毳帽之與遊 是宜富驕 (3) 而於格物致知修己理人之道 莫得其門而入焉 顧能出則手弓劍 入則目簡編 濂溪二程晦菴之書 皆棄而觀之 夜分而寢 鷄鳴而起 必將詳節目極蘊奧 心得躬行 然後乃已 溫然如春陽 湛然如秋波 雖僕妾 未嘗一見其卒怒而遽喜也 (4) 德陵遜于西蕃 春軒奉光陽君奔問洮隴 往返萬里 恠容愉色 不懈益虔 光陽安焉若在庭闈之中也 忠肅王入朝 藩府用事者 煽起鬪墻之禍 讒口交騰 舉無全人 春軒身從其居 而志從其義 直而能敬 彼此無憾 (5) 喪二親三年 立家廟 事亡如存 子男女皆先夫人金氏出 事羅夫人 亦莫知其爲繼母焉 …… (6) 嗚呼 春軒之道 盡於己而信於人 行於家而及於國 存係蒼生之望 歿與殄瘁之悲 求之於今 蓋絕無而僅有者也 予以老自居 以儒自私 而不先生春軒 可乎哉可乎哉”

84) 『고려사절요』 권25 충목왕 1년 6월.

85) 李穀, 『稼亭集』 권2 記 「春軒記」.

지 않는 학문 수준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4) 최문도는 만 리나 되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충선왕의 유배지로 직접 찾아가 인사드리는 등 누구보다 국왕에 대한 충을 다하였다. (5) 아버이를 극진한 효도로 섬겼으며,⁸⁶⁾ 양친의 3년상을 치르고 家廟를 세워 섬기는 등 孝를 다하였다. 이 중에서 (4)의 충과 (5)의 孝는 결국 최문도가 학문을 하여,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알고 몸소 실천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6) 최문도는 자신의 도리를 다하였으므로 마땅히 선생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제현은 최문도를 선생으로 부를 수 있는 점으로 그의 가계가 원래 선비 집안 출신이라는 점도 이야기 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 修身을 이루고 올바름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며, 올바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인 충과 孝를 실천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비록 무인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학문에 대한 본인의 노력과 학문을 통해 얻은 올바른 가치관의 요체인 忠孝를 실천하면 선생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선비 또는 문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제현은 최문도의 銘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銘하여 이른다. “선비[儒]이면서도 선비가 아닌 사람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으나, 선비가 아니면서도 선비인 사람은 오직 우리 春軒뿐이네.”⁸⁷⁾

출신이 원래 선비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여 선비의 덕목을 갖추지 않으면 선비가 아니다. 반면 선비 출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최문도와 같이 무인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노력하여

86) 『고려사절요』 권25 충목왕 1년 6월.

87) 李齊賢, 『益齋亂稿』 권7 碑銘 「有元高麗匡靖大夫都僉議參理上護軍春軒先生崔良敬公墓誌銘」. “其銘曰 儒而匪儒 世則寔繁 匪儒而儒 獨吾春軒”

올바름을 시행한다면 선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무인이라고 하더라도 학문에 힘쓰고, 학문을 통해 배운 바를 실천에 옮긴다면 선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을 업으로 삼고 있는 문인이 무인의 비해 사회적으로 보다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문인과 무인의 차이가 존재했지만, 무인도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선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학문에 뜻을 둘 나이가 되자 공을 세워 나라를 바로 잡겠다는 큰 뜻이 있어, 文字를 가볍게 여겨 그것을 버리고 太子府侍衛가 되었다.⁸⁸⁾

라고 한 趙仁規처럼, 학문을 할 나이가 되었지만 나라를 바로 잡겠다는 큰 뜻에 따라 문자를 가볍게 여겨 이를 버리고 무관이 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다.

고려후기에도 무인에 비해 문인을 우대하고, 무인보다 문인을 보다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는 의식은 지속되었다. 따라서 문무 차별에 따른 무인의 콤플렉스도 지속되었다. 하지만 고려전기와 같은 일방적인 콤플렉스가 아니었다. 선비[儒]란 존재에 대한 새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무인이라고 하더라도 학문을 하고 최고의 올바른 가치인 忠孝를 실천한다면 진정한 선비가 될 수 있었고 선비로 대우받을 수 있었다. 한편에서는 무인들이 문인들에 대해 가지는 콤플렉스가 지속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콤플렉스를 극복할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문인과 무인에 대한 차별의식의 변화, 이에 따른 콤플렉스의

88) 김용선 편, 2001b, 앞의 책, 「趙仁規墓誌銘」. “年至志學 有立功匡國之大志 以文字爲浮薄 乃捨之 充太子府侍衛”

극복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첫째로, 무신정변의 발생과 이로 인해 성립한 무신정권 시기의 경험 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다. 그 경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문인들의 자기반성이다. 2장의 ㉠-㉡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벌의 교만과 독선은 당시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그 결과 많은 문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품이나 덕망이 있어 무인이나 일반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문인들은 무신정변의 화를 피하고 무신정권에서 등용되기까지 했다.⁸⁹⁾ 이에 따라 삶의 자세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인집권기를 살았던 玄悟國師의 비명에는

부유함과 존귀함은 사람들이 구하고자 하는 바이나, 도리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취할 것이 아니다. 또 이르기를, "不義하게 얻는 부유함과 존귀함은 나에게 있어 뜯 구름과 같다."고 하였다.……존귀한 존재로써 천한 이에게 몸을 낮추니 공손하고도 예의가 있다. 어찌 옛 사람들이 말한 篤行君子가 아니겠는가?⁹⁰⁾

라고 하였다. 또한 마찬가지로 무인집권기를 살았던 李仁老는 「西河先生集序」에서

존귀함과 長壽는 사람의 마음이 한가지로 원하는 바이다. 그러나 君子가 귀하게 여기는 바는 德에 있지 반드시 爵位에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른바 오래되어도 썩지 않는 것은 이름에 있지 반드시 長壽에 있는 것은 아니다.⁹¹⁾

89) 邊太燮, 1966, 「高麗後期の 武班에 대하여」, 『서울大學校 論文集 - 人文社會科學』 12; 1971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408쪽.

90) 許興植 編, 1984 『韓國金石全文』(中世 下) 「龍仁瑞峯寺玄悟國師碑」, “富與貴 是人之所欲也 不以其道得之不處也 又曰 不義而富且貴於我如浮雲……以貴下賤 則恭而有禮也 豈古所謂篤行君子耶”

라고 하고 있다. 이 두 기사에서 보이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인가 하는 진지한 고민이다. 즉 문인이 주도하던 문벌사회의 폐해와 이로 인해 경험하게 된 무신정변과 무신정권은 문인들의 삶에 대한 자기반성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에 따라 존귀함이나 부유함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君子답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무인에 대한 문인들의 비하의식을 완화시키고, 이에 따라 무인들의 열등콤플렉스도 자연 완화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문인들은 무신정권 시기를 살아가면서, 정치권력을 주도하고 실제적인 힘을 행사한 무인들의 존재를 긍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반면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하던 무인들도 자신들의 역량과 처지에 대해 스스로 인정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무신정권 이후의 거란 및 몽골 침입을 겪으면서 무인들의 자존감은 더욱 강화되고 문인들의 무인에 대한 인식은 큰 변화를 보였다고 생각된다.⁹²⁾ 문자를 가볍게 여겨 이를 버리고 무인이 되었다는 조인규의 사례는 그러한 변화의 절정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무인집권기에 시작된 문인이 무관직을, 무인이 문관직을 겸대하는 관행이 무인집권기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무인들의 자존감 상승 및 문인들의 무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맞물리면서 한 가족 안에서 문관과 무관이 병존하는 현상⁹³⁾은 낱게 하고, 이

91) 李仁老, 『西河先生集序』, “貴與壽 人心之所同欲也 然君子之所貴 在德而不必在於爵位 所謂久而不朽者 在於名而不必在於壽”

92) 무신정권기에 武班의 기반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무신정권이 붕괴된 이후 고려 말까지 무신들이 권력의 증추에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邊太燮, 1966, 『高麗後期の 武班에 대하여』, 『서울大學校 論文集 - 人文社會科學』 12; 1971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93) 邊太燮, 1966, 『高麗後期の 武班에 대하여』, 『서울大學校 論文集 - 人文社會科學』 12; 1971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442-443쪽.
金塘澤, 1998, 『고려후기의 ‘士族’과 ‘士大夫’』, 『원간섭하의 고려정치사』, 一潮閣, 196쪽.

콤플렉스(Complex)를 통해서 본 고려의 사회와 인간

는 다시 무인들의 자존감 상승 및 문인들에 대한 콤플렉스 극복을 추동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고려사회에서의 儒學의 발전⁹⁴⁾과 新儒學의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도덕규범을 내지는 새로운 선비상의 제시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문을 하여 올바른 것을 알고, 그 올바른 것 즉 忠과 孝를 실천하는 사람을 진정한 선비라고 하여 새로운 선비상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선비상에서는 무인이라고 하더라도 능히 진정한 선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유학의 질적 발전 또는 居敬을 통한 修己라는 실천적 측면이 강조되는 신유학⁹⁵⁾의 수용과 관련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는 첫 번째 이 유 중 무인들이 무신정변과 무신정권을 겪으면서 경험하게 된 자기반성과 연계되면서 무인들이 지닌 콤플렉스의 극복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된다.

맺음말

이상으로 고려의 문인과 무인의 차별을 중심으로, 문인에 대한 무인의 콤플렉스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것이 무신정변 이후 어떻게 지속 또는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고려정부는 성종 이후 유교적 정치이념에 의한 체제정비를 추진하였

94) 文喆永, 1982, 「麗末 新興士大夫들의 新儒學 수용과 그 특징」, 『한국문화』 3(서울대), 106~109쪽.

95) 文喆永, 1982, 위 논문, 113~114쪽.

周采赫, 1988, 「元 萬卷堂의 設置와 高麗 儒者」 『孫寶基博士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217쪽.

다. 文治主義가 강화되는 가운데 문인과 무인이 제도적으로 분립되고, 과거 출신 문인들이 정국을 주도하고 이들에 의해 문벌가문이 형성되었다. 고려사회를 주도해 나간 문벌가문은 자신과 다른 지배집단과의 차별의식을 형성하고 이를 인간관계, 사회관계에서도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는 주로 오만과 교만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러한 오만과 교만에 가장 빈번히 직접적으로 노출된 대상은 무인집단이었다. 무인들은 이들의 행동에서 상처를 받고 피해의식 즉 열등콤플렉스를 지니게 되었다.

문인들의 경우 문벌가문이 문인관료집단에서 출발했고 문학적 소양과 이로부터 비롯된 교양을 매개로 문벌가문과의 동질성을 공유할 수 있었던 반면, 文의 능력을 갖지 못한 무인들은 문벌이 주도하는 고려사회에서 소외되었다. 金訓과 崔質 등 武人亂의 실패는 문인과 무인의 격차와 차별을 더욱 확대하였다. 문인과 무인은 사회적으로 서로 유리되었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리적 장벽이 두텁게 쳐졌고, 무인들의 문인 또는 문벌가문에 대한 피해의식, 열등콤플렉스가 강화되었다. 이 열등콤플렉스는 문인들에 의한 차별적 장벽이 강화되는데도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게 되자 더욱 확대 재생산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종대에 들어와 문인들의 오만과 교만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무인들에게 가해졌을 때, 무인들의 콤플렉스와 좌절감, 이로부터 비롯된 분노와 적대감은 견잡을 수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결국 무신정변이 발생했을 때 문인들에 대한 극단적이고 잔인한 가해로 표출되었다.

무신정변 이후 무인은 문인에 비해 정치적, 사회적 우위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무신정권 성립 이후에도 고려사회에서는 武보다는 文을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풍토가 지속되었다. 文과 武에 대한 가치평가는 문인과 무인에 대한 가치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학문을 하는 사람은 올바른 도리를 알고 修身을 통해 자신을 질제하며, 이에 따라 治者의 자격을 갖춘 반면, 학문을 하지 않은 武人은 올바른을 알지 못하며

콤플렉스(Complex)를 통해서 본 고려의 사회와 인간

자기 절제도 하지 못하므로 인간의 격이 낮고 治者로서의 자격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인식이 계속됨에 따라 무인들이 문인들에 대해 가졌던 콤플렉스, 특히 학문에 대한 콤플렉스는 극복되지 못하고 지속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변화의 양상도 보이고 있다. 무신정변과 무신정권을 거치면서 문인들의 자기반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올바른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졌다. 이는 무인에 대한 문인들의 비하의식을 완화시켰고, 이에 따라 무인들의 열등콤플렉스도 완화되었다. 또한 무신정권과 이후의 전란을 거치면서 무인들의 자기인식과 자존감이 확대되었고, 문인들도 이런 무인들의 존재와 힘을 긍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자연 무인들의 콤플렉스를 완화시켰다.

더불어 儒學의 발전과 新儒學의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도덕규범을 내지는 새로운 선비상이 제시되었다. 즉 학문을 하여 올바른 것을 알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인 忠과 孝를 실천하는 사람을 진정한 선비라고 하는 새로운 선비상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무인이라고 하더라도 학문을 하고 修己하며, 忠과 孝라는 올바른 가치를 실천한다면 진정한 선비가 될 수 있었다. 이는 무인도 본인의 노력과 실천 여하에 따라 문인과 대등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자연 무인들이 열등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제공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Goryeo Society and People Observed by Inferiority Complex - Focusing on the Discrimination of Literary Officers and Military Officers

Park, Jin-Hoon

This study surveys the discrimination of literary officers and military officers in the light of inferiority complex that Goryeo people used to have. Since King Seongjong, the ruling system was arranged on the basis of Confucius Political Ideology, enforcing the civil administration system. Thus, the literary officers led the political situation, establishing the powerful literary families. Each literary family formed a particular consciousness different from other ruling groups and displayed it in the human and social relations. It was mainly expressed with pride and arrogance, and the direct victim of such discrimination was mainly soldiers. Hurt by rudeness of literary officers, soldiers came to have victim mentality or inferiority complex.

Without the literary ability, soldiers used to be excluded from the literary-ruling society. Literary and military officers got socially separated more and more and the psychological barrier became higher and higher. When the discrimination between literary and military officers became incurable, the inferiority complex of soldiers went to extremes. In this situation, when the literary officers showed contemptible behaviors to soldiers directly in Eujongdae, their inferiority complex along with frustration and rage could not be controlled. Finally, it caused a political upheaval by soldiers, who inflicted

콤플렉스(Complex)를 통해서 본 고려의 사회와 인간

severe and harsh revenge to literary officers.

After the political upheaval, the soldiers came to have a superior position to literary officers. But, never changed the climate that the literacy was valued higher than militarism. People continued to think that, while literary persons knew the right way through the literal exercise and tried to practice it, the soldiers ignored the way and thus could not do self-restraint. Therefore, the inferiority complex of soldiers toward literary officers could not be overcome.

Meanwhile, in this process, literary officers came to have self-reflection and reduced their contemptible attitude toward soldiers. During the ruling by soldiers, they came to know the power and existence of soldiers and recognize it. And,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Confucianism and the introduction of Chu Hsi's idea, new moral rule and scholarly model were suggested. The true scholar was thought to be the person who knew the rightness through the study and practiced the loyalty and filial piety. So, if even a soldier studied the way and practiced the loyalty and filial piety, he could be reckoned as a scholar. As the soldiers could become scholars through their endeavor, it provided the basis to relieve the discrimination against soldiers and to overcome the inferiority complex of soldiers.

Key Words : inferiority complex, the discrimination of literary officers and military officers, scholarly model, literary ability, psychological barrier